3대가 하나되는 종구

2023년 2월
한국족보박물관 족보인사이트 제22호

토끼띠 인물

순천인씨 시조가 된 인물

인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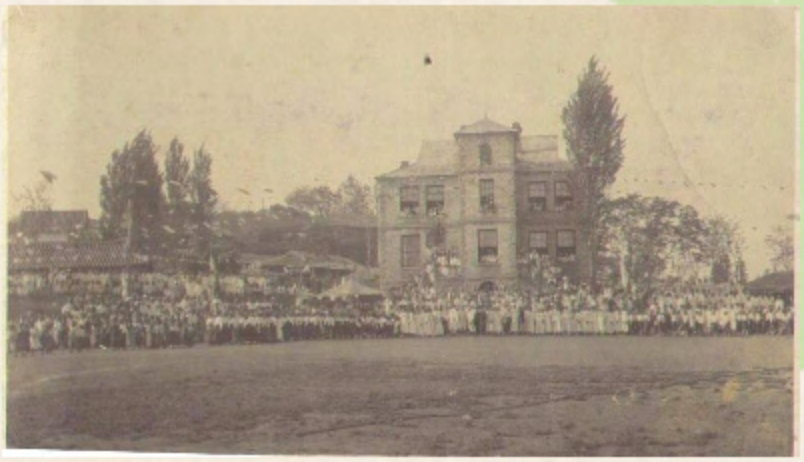
한반도의 근 · 현대를 함께한 한 가문이 있습니다.
1919년 3월의 만세운동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습니다.

일본은 10년 동안 조직적인 방법으로 5,000년 동안
존재해온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 합니다... 3 · 1운동은 비폭력의 항거였습니다.
감옥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수많은 군중으로 가득 찼고,
일본은 행진하는 사람들을 기병대의 말발굽으로 짓밟았습니다....
한국인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위로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지역 평신도 대회에서 실상 보고 中

1919년 3월 군산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을 지원한 외국인 선교사는
같은 해 5월 미국 애틀랜타 평신도 대회와 지역 신문에서 조선을 알립니다.

한남대 설립을 위한 토지 조사



군산 영명학교

전주 신흥학교

한남대학교 설립

군산 영명학교 교장

전주 신흥학교 교장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 교장

*1912년부터 1960년 사망 전까지 한반도 발전에 이바지함

외국인 선교사의 이름은 윌리엄 린튼(인돈)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도 한반도의 교육 발전에 힘썼습니다.

사진 출처 한남대학교

윌리엄 린튼의 한국과의 인연은 후손들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아들 휴 린튼(인휴)는 UN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결핵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사진 출처 유진벨 재단

휴 린튼의 둘째 스티븐 린튼(인세반)은
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지원부터
결핵퇴치 사업과 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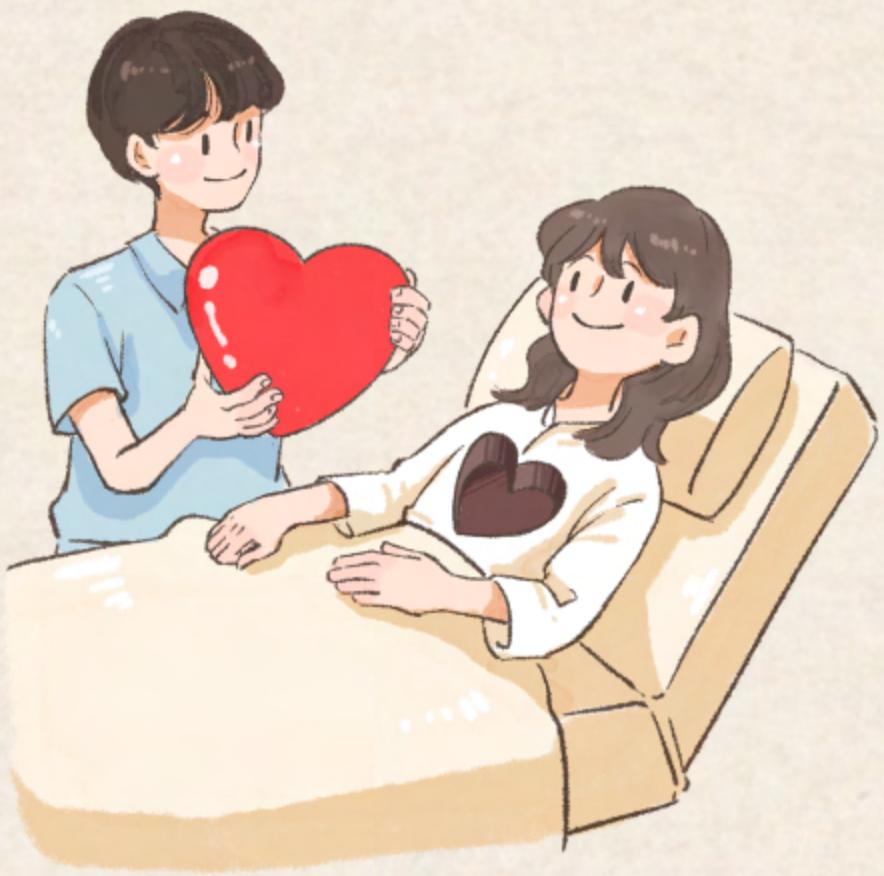


사진 출처 유진벨 재단

사진 출처 위키백과

셋째 존 린튼(인요한)은 5.18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의 이야기를 통역하였고
부친 휴 린튼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 최초 앰뷸러스를 만들었습니다.

... 당시 순천의 의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지금만 같았어도 아버지는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주 기독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위급 환자를 택시에 태운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 순천에는 앰뷸런스가 없었다.
순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몇 군데 큰 병원을 빼면 앰뷸런스라는 게 없었다.
1984년, 겨우 20여 년 전 일이다.

-인요한 저, 내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中

2012년 윌리엄 린튼의 후손은 순천인씨를 본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윌리엄 린튼을 시조로 58명의 후손이 성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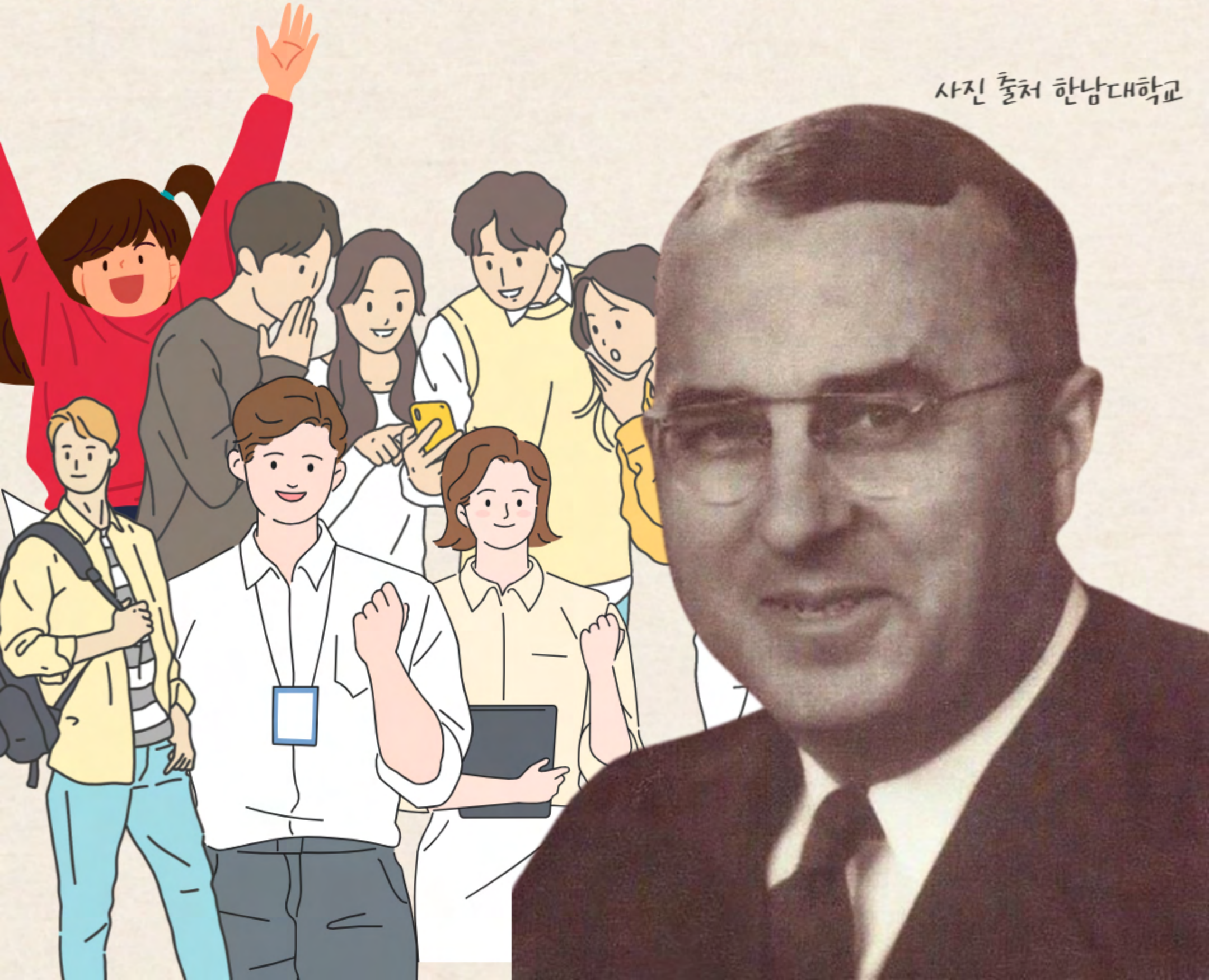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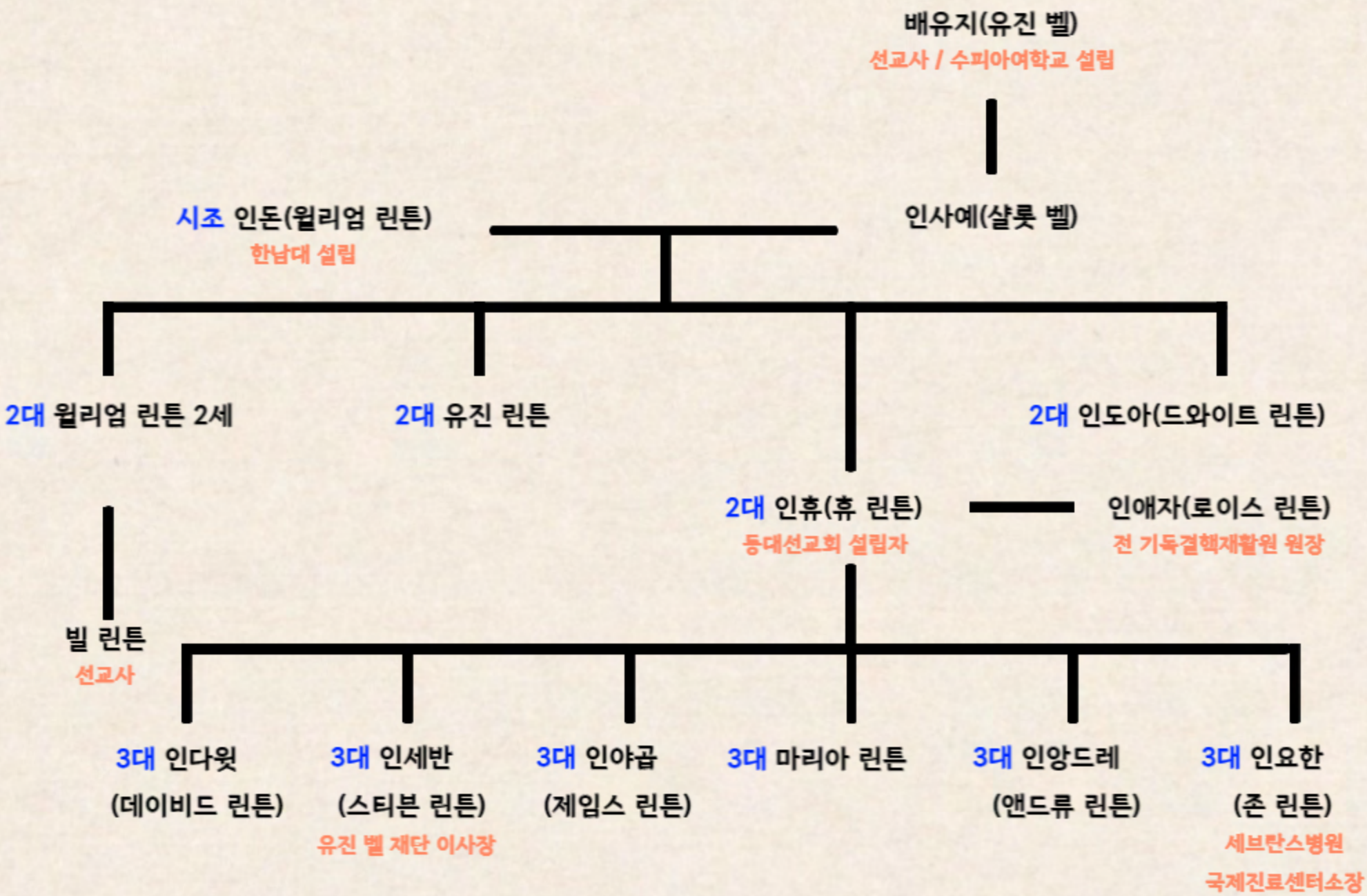


사진 출처 한남대학교

순천 인씨의 가계도



1912년부터 현재까지 린튼가는 한반도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 · 현대사를 함께한 순천 인씨 가문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 한국족보박물관 일동 드림 -